

01 교회소식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추수감사주일과 은혜와 감동의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시상식.

02 생명의 말씀

빛을 좇아 오나니

빛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빛의 자녀 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03 기획특집

응답을 끌어내리는 기도의 힘

마음 다한 찬양과 간절한 기도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한 정주선 자매를 만나 본다.

04 간증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아 행복합니다!”

권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전하는 일본 사사키코즈에 집사,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아 참 행복을 알게 된 오미자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865호 2018년 11월 2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18일, 한 해 동안 질병, 사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주일 대예배에는 정구영 목사가 ‘범사에 감사’(살전 5:16-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사진), 저녁예배에는 이수진 목사가 ‘고난과 영광’(히 12:2)이라는 말씀을 증거한 후 성찬식이 이어져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겼다. 올해 추수감사절 단 장식은 곡물 45종, 과일 46종, 채소류 외 197종 총 288종으로 변함없이 풍성하게 올려졌다. 큰 천사 날개와 오로라 빛이 나는 큰 하트 안에 각

종 열매를 담았는데, 이는 전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했다. 단 장식은 여선교회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성도들의 봉사와 찬조로 이뤄졌다.

2018년 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시상식

지난 11월 18일(주일) 저녁 8시 30분, 준비찬양을 시작으로 만민기도원 주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시상식이 열렸다. 이 기도회는 지난 10월 8일부터 42일간 이복님 원장의 인도 하에 ‘목자의 눈물의 열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임학영 목사와 도유리 전도사의 사회로 40일 이상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100명을 추첨하여 선물을 증정하였으며, 대상은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가 추첨한 김복심 전도사(2대대 21교구 부교구장)에게 주어졌다(상단 오른쪽 사진).

아동부터 노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추첨되는 가운데 올해 큰 부흥을 이룬 중국교구에서 여러 성도가 상을 받아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두 자녀와 함께 추첨이 된 김은숙 권사(1대대 4교구)는 “12월에 아들은 군 입대를, 딸은 교환학생으



로 미국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하며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했다. 추첨 중간에는 예능위원회 소속 한주

경 찬양선교사의 감동의 찬양과 파워워십팀의 아름다운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빛의소리중창단과 크리스탈 싱어즈가 말씀 무장과 불같은 기도의 중

요성을 담은 콩트로 웃음을 선사하였다. 끝으로 녹음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축복기도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응답과 축복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지난 10월 29일(월), 특별 다니엘철야 기간 중에 있었던 ‘특별찬양’ 시간에는 임나탈리아 집사(해외교구)가 불면증 증세를 치료받고, 정주선 자매(중3)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등 성도들의 간증이 잇따르고 있다(3면 참조). 한편,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매일 밤 계속되며, GCN방송(www.gcntv.org)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또한 만민기도원에서는 질병 치료나 문제 해결을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평일에는 오전 기도원 집회와 ‘환자를 위한 오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리즈 6

빛을 좇아 오나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 요한복음 3:21 -

“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진리인 빛을 좇아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지구상에는 수많은 식물이 있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참으로 신기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분을 창가에 두고 며칠이 지나면 줄기 끝이 햇빛이 들어오는 창을 향해 굽어 있음을 볼 수 있지요. 햇살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산림 속에서도 대부분의 식물은 어떻게든 빛을 향해 줄기를 뻗습니다. 반면에 어떤 식물은 빛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자라기도 하지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빛의 자극에 반응하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람에게도 이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는데,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선을 좋아하고 진리를 좇으려 합니다. 반면에 악한 마음은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어두움을 좋아하고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악하나에 따라 어떤 이는 진리를 좇아 빛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악을 좇아 어두움에 물들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자신의 어렵고 힘든 환경을 비판하여 일생을 어두움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순간의 실수로 범

죄 조직에 가담했다가 돌이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중심이 바른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빛을 좇아 나아간다는 것과, 자칫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 어두움에 물들었을지라도 돌이켜 빛을 좇아 나오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빛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좇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이런 사람은 빛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빛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빛은 영적으로 ‘어두움이 전혀 없는 영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밖으로 나타난 상태를 ‘빛’이란 단어로 표현한 것이지요(요일 1:5; 약 1:17).

요한복음 1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빛’이라 증거했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요 1:14)께서는 본질상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비추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빛이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리의 말씀 자체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빛은 진리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참된 도의 길이 되신 것이지요.

2. 빛을 좇아 나오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통회자복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속성인 빛이 좋아지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지요.

성경 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자녀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요찬양예배 [빛과소금]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면 왜 주의 법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일까요?

가령,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이는 진리인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진리가 있는 만큼 성령이 탄식하시므로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고통이 따르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미움을 버리고 사랑한다면 마음이 평안할 뿐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며, ‘지키라’ 하는 것은 지키고, ‘버리라’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도리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즐겁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면 예배드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십일조나 감사예물도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하게 드리지 않지요. 구제나 봉사할 때에도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충성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시글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어 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집을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내주어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배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들 부부가 얼마나 충성 되게 사도 바울을 도왔던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롬 16:4)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빛을 좇아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가 하면,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생명 대해 복음을 증거하지요. 칼로 목 베임을 당하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함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지

인 로마에 복음의 꽃을 찬란하게 피웠습니다. 정녕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육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마 5:11~12).

이처럼 빛을 좇아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거하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들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부르셨지요(벧전 2:9). 빛을 좇아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처소를 예비해 주십니다(계 21장).

그런데 빛을 좇아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속히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빛을 좇아 나아가야 하며, 입술로만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빛 가운데 행해야 하지요(히 10:22).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좇아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3. 빛을 좇아 나오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두움을 좇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소욕을 좇는다면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낳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설령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란 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아 나감으로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라 할지라도 성령이 친히 갈 길을 알려 주시니 그 앞에 막힐 것이 없고, 혹 장애물이 있더라도 능히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나 미련한 자가 되어라...” 말씀한 대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결을 이루고 빛으로 들어가는 만큼 하늘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빛에 거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부족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한 대로 빛에 거하면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므로 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지요.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 다투거나 불목할 일이 없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 항상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어두움을 벗어나고 진리인 빛을 좇아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빛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하실 뿐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어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를 통해 마음의 소원 응답받았어요!”

정주선 학생 (중3선교회)



저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사정상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장학금과 때마침 구로구청 장학지원 학생으로 추천받아 3개월간 단기과정으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기에 특별 다니엘철야를 작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 다니엘철야를 인도하시던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이 “특별 다니엘철야는 마음의 소원을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 이거다!” 하며 더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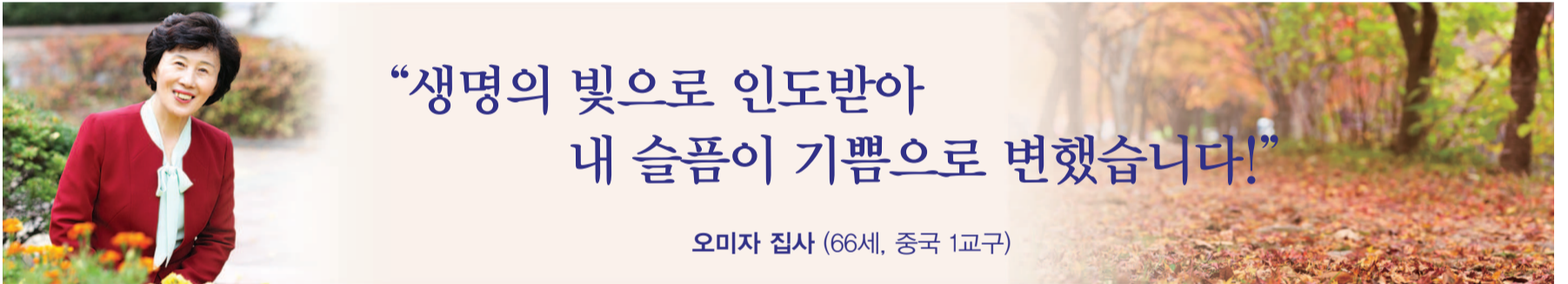
◆

10월 30일(화)에 있을 음악연극과 실기 시험을 앞두고 음악지도 선생님은 일찍 잠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당회장님의 녹음된 기도를 받고 권능의 손수건을 지닌 채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욱이 즉석연기 소재가 제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고, 특기표현 노래도 잘할 수 있었지요.

11월 2일, 발표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아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오미자 집사 (66세, 중국 1교구)

저는 큰돈을 사기당한 뒤 불면증, 우울증, 심장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가정의 문제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소문난 무당을 찾아다니며 곳을 해도 해결받지 못했고, 병원에서조차 우울증을 고치지 못했지요.

그 와중에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라며 또다시 심장에 통증이 오면 생명이 위태하다고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7월, “우리 교회에 오면 암도 치료받는다”고 했던 조카의 말이 떠올라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본당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평안과 위로를 느꼈지요.

매일 성경을 읽고, ‘십자가의 도’, ‘열재앙’, ‘팔복’ 등 당회장의 설교를 들어나가니 그동안 왜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먹고 하루 종일 당회장의 설교 테이프를 들었지요. 그리고 설교 후에 나오는 환자기도를 매일 정성껏 받으니 고관절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30여 년간 고통받던 불면증도 치료되었습니다. 그 뒤 우울증,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았을 뿐 아니라 침침했던 눈이 밝아지고, 끊겼던 경수가 다시 나오는 체험까지 하였지요. 할렐루야!

2007년에는 구역장이라는 귀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 떼를 절대로 잃지 않으며 모두 알곡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매주 새신자를 보내 주셔서 그해 3배가 부흥을 이루었고, 이듬해에는 조장의 사명을 맡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히 여겨 기쁨으로 배합 없이 감당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믿음과 천국 소망을 선물로 주셨으며, 2015년에는 교회로부터 우수 조장상을 받았습니디. 한때 삶을 포기하고자 했던 제가 이렇듯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값진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2017년부터는 중국교구 새신자관리부 부장의 사명을 맡아 수많은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제 간증을 전해 드리면 새신자들도 놀라워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성결을 위해,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다니엘철야 때마다 생명 다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만민중앙교회를 만나 영육 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당회장님께도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아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8888-0727
- 광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8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창로 162 ☎010-3232-750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99, 010-8927-2073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352-8336